

# 청춘은 아파서는 안 된다

김 중 백  
사회학과 교수



10여 년 전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명성을 얻으며 청춘이 겪는 아픔을 일종의 성장통으로 간주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청춘 앞에서 ‘청춘은 아파도 괜찮아. 너희는 젊잖아.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한다. 안타깝지만 청춘의 마음은 더 아프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단계의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교육이 일반화되며 고등학교 졸업 시기인 만 18세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로 받아들인다. 그 이후에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과 고등교육기관에 진출하는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학령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큰 변화 없이 67~70% 정도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고등교육에 진학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 생계와 학업을 위해 단기 일 자리를 가지는 비중이 작지 않으나 그래도 아직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는다.

과거에 대학이 젊음과 낭만의 상징인 시기가 있었다. 임시 위주의 교육에서 해방된 학생들이 마음껏 자기 시간을 즐기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배 및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다. 학생들은 자유로움을 즐기고 세상을 비판하며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갔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몇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변하기 시작하였다. 대학 졸업이 평생직장을 보장하던 시기는 지나갔고 소위 명문대학을 나와도 30% 정도는 바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가능성이 넓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의 수준도 높아졌다. 준비가 잘 된 학생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되겠지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타임라인과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자격과 권리가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만 평범한 학생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대학에 다니는 청년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

요즘 청춘 앞에서 ‘청춘은 아파도 괜찮아. 너희는 젊잖아.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

물론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언제나 일정 수준의 혼란은 발생한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아노미(anomie)적 자살에 대해 논하면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사회규범과 가치관이 해체됨에 따라 사회적 연대가 위협받을 때 자살의 충동에 빠지는 사람이 증가함을 밝혔다.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은 그의 저서 <사회변동론>에서 문화지체 현상을 제시하며 물질문명의 빠른 변동 과정에서 정신문명이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적 병리로 발전될 수 있음을 밝혔다. 세상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정서 불안을 경험하는 집단은 발생하게 되는데 임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내적 성장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우리 대학생들은 사회변동에 취약한 편이다.

청년들은 힘들다. 이미 20대 사망원인 가운데 1위(2019년 기준 51.0%)가 자살임은 더는 놀랄만한 통계도 아니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20대의 숫자도 2016년 6만 5천여 명에서 2019년에는 12만 1천여 명으로 늘면서 청년의 정신건강이 위험한 수준에 이

르고 있음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굳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필자가 상담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상황이 과장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상담의 특성상 내면의 얘기를 모두 듣기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상실을 토로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대학 내 인간관계도 사라지다 보니 더욱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자신만의 삶의 타임라인을 찾기 바란다. 우리 대학생들은 오랜 입시경쟁을 통해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은 필요하다. 하지만 인생을 입시 준비하듯 살아갈 필요는 없다. 입시를 위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대학생은 그럴 필요가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자격과 권리가 있다. 조금 먼저 이룬다고 해서 인생

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고 조금 늦게 가는 느낌이 들더라도 100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별반 차이는 없다. 타인의 삶, 사회의 흐름을 참고는 하되 내 삶의 시간표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만의 타임라인 위에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나의 자아, 행위, 사회적 위치를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 여기서 필자가 제안하는 사회 활동은 특정한 대외활동이나 인턴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수업의 좁은 틀을 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혼자만의 고민을 통해 마음 근육이 단단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나만의 타임라인 위에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아를 발견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방학 첫 주 월요일 9시에 할 일이 없으면 그 방학은 이미 실패한 방학이라 얘기하곤 한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는 인생의 여정을 밟아 나갈 때 우리 청년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리라 믿는다.